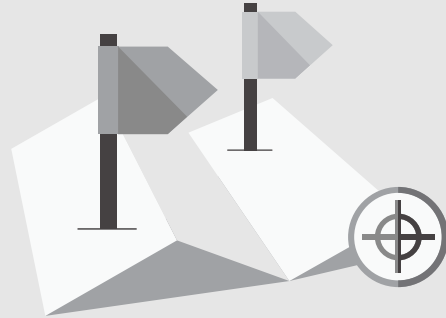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종서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변수정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장인수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김은정

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조성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선영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년 주기로 '가족과 출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를 개인 단위와 가족 단위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작용 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완료 표본은 9,999가구, 1만 4,538명 이었고, 배우자와 애인 및 파트너가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1%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1-070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를 중심으로'에 게재된 원고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¹⁾

The 2021 Family and Fertility Survey: Its New Features and Their Significance

박종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조사부터 새롭게 개편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 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직전 조사까지 조사 대상이 15~49세 기혼 여성이었다면,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은 19~49세 성인 남녀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였고, 미혼자와 기혼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표본을 통하여 청년기부터 가족 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고, 법률적인 가족 제도 안팎에서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개편하였다.

1. 들어가며

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이하, 출산력 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출산

1) 이 글은 박종서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제1장과 제3장의 내용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력 조사는 1964년 ‘전국 가족계획 실태조사’로 시작하여 2018년까지 이어져 왔다. 197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였으며, 1985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로, 2003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로 개편되었다. 조사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유사한 체계로 지속되었다.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관련 내용에 치중하였고, 1970년대 조사에는 출산 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조사에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더해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을 변화와 인구 증가 억제 정책 폐지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 조사는 지속적인

표 1. 출산력 조사 연혁(1982~2018년)

조사 연도	조사 명칭	가구 조사	기혼 가구	기혼 여성	유배우 부인 (임신, 출산 등 분석)	비고
1982	전국 가족 보건 실태조사	7,375가구		15~49세, 5,371명	15~44세, 4,351명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	7,415가구		15~49세, 8,421명	15~44세, 7,010명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	11,864가구		15~44세, 7,792명	15~44세, 6,515명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	11,540가구		15~49세, 7,384명	15~44세, 6,270명	18~34세 미혼 남녀(3,715명)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	10,613가구		15~49세, 6,060명	15~44세, 5,183명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	11,216가구		15~49세, 6,450명	15~44세, 5,420명	65세 이상의 노인(2,207명)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	11,388가구		15~64세, 10,715명	15~44세, 6,408명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5,758가구	15~59세, 11,111명	15~59세, 10,078명	15~44세, 6,598명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4,497가구	15~59세, 10,132명	15~59세, 8,774명	15~44세, 5,395명	
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3,883가구	15~64세, 10,777명	15~64세, 9,807명	15~44세, 4,868명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4,970가구	15~64세, 10,071명	15~64세, 8,179명	15~44세, 4,537명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1,009가구		15~49세, 11,009명	15~49세, 10,324명	20~44세 미혼 남녀(2,383명)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1,207가구		15~49세, 11,207명	15~49세, 10,630명	20~44세 미혼 남녀(2,462명)

자료: 1)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2)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인 저출산의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 및 원인 해소를 위해 가족복지 측면이 강화되었다. 2015년부터 조사 대상 표본을 기혼 여성으로 더 분명히 하고 표본 규모도 확대하였다. 또한 조사 내용을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경제활동 중심으로 더 체계화하였다.

‘출산력 조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조사로서 사회 변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과 명칭이 바뀌어 왔지만, 정책적 근거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분적으로 조사 내용의 객관성이 약화되거나 전통적 관점이 유지되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의 복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출산력 조사’의 내용에도 가족복지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가족주기 관련 내용 등 가족의 전형성(정상성)을 고려한 내용은 유지되었다. 또한 저출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행동의 원인을 응답자에게 직접 묻는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분석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을 조사 대상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었다. 2015년 이후 내용 구성이 전반적으로 체계화되었지만, 인구와 가족 문제의 원인을 응답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문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조사 내용에서도 인공임신중지 사유와 같이 과도하게 민감한 정보를 조사하고 문항의 연관 관계가 복잡하여 응답 부담도 크게 남아 있었다.

기존 조사의 표본 설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가구 조사와 개인 조사, 남성과 여성, 기혼

여성과 유배우 여성, 연령 기준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2015년 조사부터 15~49세 기혼 여성으로 표본 일관성을 확보했지만, 미혼자에 대해서는 과학적 표본 설계에 근거하지 않고 부가 조사 성격으로 기혼 여성 가구에 동거하는 일부 미혼 남녀를 조사하여 별도의 자료(dataset)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미혼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대표성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결혼 및 출산 행동 관련 사항이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측정되어 가임기의 해당 연령을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출산력 조사가 계속 기존의 조사 목적과 내용의 일관성을 단순히 유지하고자 한다면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의 가족과 인구 행동은 점차 다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애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규범은 더 이상 확고한 신념이 아니다. 개인 또는 부부는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가족의 고유한 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결혼과 출산 행동의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인구현상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2021년 조사부터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조사부터 새롭게 고려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 ‘가족과 출산 조사’의 주요 개편 내용

가. 조사 명칭과 관점의 변화

2021년도 조사는 기존 조사와 비교해 많은 점이 변화되었다. 우선 조사의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사의 기본 방향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과거에도 몇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약 20년 주기로 변경되었다. 직전 명칭 변경은 2003년에 있었으며, 2021년 기준으로 1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명칭 변경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조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이었다. 기존 조사 명칭에서 핵심 용어는 ‘출산력’이었다. 이 조사의 기원은 1964년 ‘전국 가족 계획 실태조사’로 거슬러 올라가며,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때는 1968년이다. 당시 조사 명칭은 ‘전국 출산력 조사’였다. 이후부터 2018년 조사까지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 왔다(오명희 외, 2016, pp. 24-29). 1960년대부터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실제로 이 조사를 통하여 출산율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산출하였고, 2015년 조사부터 더 이상 출산율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 계산을 위해서는 인구동태 신고 자료(Vital Statistics by Civil Registration) 또는 전국 표본조사 자료(National sample Survey data)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신고는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1984년까지도 출생신고를 하는 비율이 80%를 넘지 못하였다(이흥탁, 1994, p. 143). 전국 표본조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이용되었다. 이 조사도 1960년대부터 출산율 측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사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민들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신고가 정확해지고 통계청의 자료 품질 개선 노력이 지속되면서 통계청의 자료가 매우 정확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조사 자료를 통한 출산율 계산을 중단한 것이다.

2021년도 조사 개편 과정에서 연구진이 조사의 방향성을 검토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출산율 측정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의 측정이었다. 이제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조사 명칭에 계속 사용할 사회적 맥락은 약화된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이 조사의 주요 초점은 출산 행동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출산’ 행동에 관한 용어를 명칭에 포함할 필요는 있었다. 다른 한편 이 조사는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일련의 가족 구성 및 생활을 담고 있다. 국내의 인구 및 가족 관련 사회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조사가 전통적으로 인구 행동과

가족 구성 및 생활에 초점을 두었던 특징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조사의 명칭을 ‘가족과 출산 조사’로 명명하게 되었다.

2021년도 조사 개편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또 하나의 초점은 조사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조사는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행동의 결과에 집중해 온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가족 구성 및 생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기혼 여성의 출산 행동만으로 인구 행동의 전반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청년기부터 결혼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구성의 제반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 행동의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생애경로가 다변화되었다는 점을 말한다. 이제는 결혼, 출산, 가족과 관련된 전형적 규범과 형태를 전제하고 조사를 설계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인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 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배우자 및 파트너 관계의 유연성, 누가 부모인지에 대한 유연성,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는 유연성, 비혼 출산의 가능성 등을 조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생애사

건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며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전 조사처럼 최종 행동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행동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도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이나 임신 및 피임 결정 과정에서 배우자 및 애인과 파트너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피임, 임신, 난임, 출산 등과 관련되는 재생산건강과 권리는 혼인 여부, 성별을 떠나 모든 개인의 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재생산건강은 출산 억제 정책 추진 시기와 같이 출산 조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더 초점을 두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조사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다. 매우 민감한 사적 영역에 대해 조사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행의 장애 요인을 밝히고 정책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인구 행동 및 재생산건강과 가족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및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나. 조사 내용의 변화

2021년도 조사 내용 개편에서 고려한 몇 가지 초점이 있다. 우선 이 조사의 주요 항목은 시계열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임신과 출산, 결혼 관련 기본적 사항은 대체로 유지하되, 피임이나 출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을 추가하였고, 과도하게 민감한 정보 일부는 제외하여 이번 개편에서 고려한 변화된 관점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편에서 고려한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청년기부터 가족 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는 것이며, 법률적인 가족 제도 안팎에서 동시에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청년기 생애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성장기와 주거 이동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동거와 결혼 관련 내용에서 기존에는 결혼 이력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면, 2021년 조사부터는 19~49세 응답자의 현재 결혼 및 동거 관련 파트너십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법률적 혼인 상태뿐만 아니라 실질적 혼인 관계인 경우와 혼인 관계가 아닌 미혼 동거 상태까지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문항을 설계하

였다.

또한 가치관과 인식에 관련되는 문항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에 맞지 않는 전통적 인식을 나타내는 질문도 일부는 유지하였다. 전통적 가치나 규범을 나타내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문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전문가 자문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의 가치와 인식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비교의 준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변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서 또 다른 특징은 직업 이력을 조사

표 2. 조사표 내용 구성

구분	주요 항목
가구 및 가구원 사항	- 이름, 관계, 성, 연령, 교육, 혼인 상태, 취업 여부, 종교, 국적, 동거 여부 - 주거,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부모와의 관계	- 부모 연령, 학력, 생존 여부, 직업, 경제 상황 - 세대 간 자원의 교환 및 세대 관계
동거와 결혼	- 유배우자: 결혼 시점, 동거 시점, 혼인신고 시점, 결혼식 시점, 결혼 기대 척도, 결혼 이력 - 동거 중: 시작 시기, 동거 기대 척도, 결혼 이행, 차별 - 미혼(기혼 무배우자): 결혼 의향, 결혼 기대 척도, 동거 의향 등 - 이혼 경험자: 자녀 유무, 양육비 지급 사항
임신 출산 건강	- 피임: 생식계 건강, 대처 방안, 피임 인지도, 경험, 방법, 이유, 의사 결정 - 임신 출산: 임신 횟수, 계획 여부, 결과, 총출생아 수, 결혼 당시 출산 계획, 향후 출산 의향, 의사 결정 척도 - 난임(불임): 경험, 검사, 원인, 시술 경험, 결과, 기간 등
산전 산후 관리	- 산전, 분만: 진찰 장소, 횟수, 초진 시기, 불편 사항, 분만 장소, 자연분만 여부, 분만 시기와 체중 - 산후 관리: 산후 진찰 경험, 산후조리 장소, 산후 우울 경험 및 치료 - 수유: 방법, 정보 취득, 모유 수유 여부 및 계획, 이력
자녀 양육	- 분담: 육아와 가사 시간 분담, 만족도 - 미취학 돌봄: 희망 돌봄 유형, 현재 유형, 주체, 만족도, 어려움 - 취학 돌봄: 희망 돌봄 유형, 현재 유형, 주체, 만족도, 어려움 - 양육비: 돌봄기관, 공·사교육비, 돌봄인력 비용, 기타
일	- 본인과 배우자 현재 취업 상황, 항목별 시간량과 적정성, 생애사건 시 취업 이력
성장기와 주거 이동	- (15세 당시) 거주지역, 동거 부모, 분거 경험, 15세 때 경제 형편 - 주거 독립, 자립 인식, 결혼 전후 주거
가치관과 인식	- 성역할 태도와 가치, 자녀 출산 태도, 사회 신뢰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19.

했다는 점이다. 일부 한계는 있지만 가급적 첫 직장부터 현재 직장까지 주요 직업력을 조사하였다. 직업력에서 특히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생애 이벤트 전후의 직업 상황은 최대한 정확히 조사하도록 노력하였다.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업 이력을 조사한 이유는 자료의 패널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조사 대상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력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해당 이벤트 발생 전후의 취업 상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출산 이벤트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패널 자료로 전환할 수 있다. 산전, 산후 관리와 자녀 양육 영역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주요 조사 항목은 <표 2>와 같다.

다. 가구와 가구의 기준

2021년 조사 개편 과정에서 가구와 가족 및 가구의 정의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이 조사는 가구원 및 가족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원에 한해 개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과 가족 및 개인 조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존 조사에서는 ‘기혼 부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미혼 남녀와 기혼 남녀가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되면서 가구와 가족 및 가구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했다. 우선 가구는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비동거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하였으며, 비동거 미혼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하

지 않았다. 모든 가구원과 비동거 배우자 그리고 비동거 미혼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원 및 가족 사항’으로 성, 연령, 교육, 경제활동 상태, 국적 등 기본 항목만 조사하였다. 19~49세 개인과 그의 배우자는 개인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비동거 배우자와 비동거 미혼 자녀는 개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비동거 배우자와 비동거 미혼 자녀 모두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이 조사에서는 배우자가 가구의 경제적 주체로 역할을 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가구원에 포함하였고, 미혼 자녀는 경제적 의존관계가 있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비동거 성인 미혼 자녀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조사에서는 이들을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독립 가구로 분류하였다. 2021년 조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 중 하나는 청년 세대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이다. 주거 공간적으로는 원가구와 독립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원가구에 의존하고 있는 성인 자녀를 독립 가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가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 가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할 수 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독립 가구로 분류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원가구의 가구원에 포함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경제 상태보다 공간적 주거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경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일 것이다. 즉 조사의 목적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이런 경우 독립 가구로 분류하였다. 대신 원가구와의 경제적(현금 및 현물) 자원의 교환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독립 가구로 분류할 때 가구소득에서 부모에게 받는 지원금을 사적이전소득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세대 간 자원의 이전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지만 주거에서 독립한 미혼 청년 세대를 독립 가구로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들을 독립 가구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다시 부모와 같이 살게 될 가능성보다는 본인의 가족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삶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삶의 측면에서 일상생활은 이미 독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경제적 의존 상태는 한국의 초기 성인 독립 가구의 한 특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들을 독립 가구로 분류하면 정책적 쟁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이들을 원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가구주가 부양해야 할 가구원으로 판단한다면,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여전히 가족에게 전가하는 전제를 인정하게 된다. 이들을 독립 가구로 분류하고 정책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재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독립 가구로 분류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미래 가족과 가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함이다. 이들의 파트너십은 어떤

특성으로 전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결혼과 출산으로 이행하는 경로가 분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주거 독립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 ‘이들이 점차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으로 얼마나 빨리 이행할 것인가?’ 등 2021년도 개편을 통해 향후 20, 30년 동안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이 관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 조사 대상의 변화

2021년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조사 대상의 변화이다. 기존 조사는 ‘기혼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점에 따라 남성이 일부 포함되거나 미혼자가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기혼 부인이 제일 중요한 조사 대상이었다. 이는 이 조사의 정체성이었던 ‘출산력’ 또는 ‘출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국 사회의 특성상 비혼 출산율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미혼자를 제외해 왔기 때문이다.

2021년 조사부터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남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본 설계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성인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미혼자와 기혼자가 모두 한 표본에 포함되었다. 표본을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많다. 기존 조사 표본에서 미혼자를 배제하여 발생하는 출산율 측정의 한계가 미혼·기혼 통합 표본에서는 사라진다. 또한 미혼에서 혼

표 3. 2021년도 조사 대상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대상 연령	15~49세	19~49세
조사 대상 성별, 혼인 상태	기혼 여성	미혼·기혼 남녀
기혼·미혼 표본 특성	기혼·미혼 표본 분리	통합 표본
완료 표본 규모	기혼 11,207명(미혼 2,400명)	가구: 9,999가구 개인: 14,539명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32.

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사가 패널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이행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연령 코호트에 따른 추세 변화는 관찰 가능하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혼이나 출산 행동은 두 사람의 의사 결정 과정이다. 그동안 출산력 조사는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남성의 입장이나 선택을 알 수 없었다. 이번 조사부터 남성을 표본에 포함함으로써 인구학적 이벤트 발생 및 선택 과정에서 남녀 모두의 변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조사 대상 연령 또한 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가임기는 15~49세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혼 미성년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하한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상한은 49세를 유지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15~18세 출산율이 극히 미미한 점을 고려하였고, 조사 거부 우려를 고려하였다. 상한 연령 역시 44세로 제한해도 출산 행동의 영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의 양육 환경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 성장기를 포함

하는 49세까지로 넓힐 필요가 있었다.

2021년도 조사의 연령 기준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연령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조사 대상을 19~49세로 하면, 배우자 정보가 누락되는 일부 연령층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 연하 남성 연상 혼인 관행을 고려하면 45세 이상 여성의 배우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구학적 행동에 대한 결정 요인 분석에서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혼자의 배우자 상한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배우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한정된 조사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을 다양화할수록 기혼 여성의 표본 수는 감소하게 된다. 기혼 여성 표본 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인구학적 이벤트, 특히 임신 및 출산의 관찰 사례 수도 감소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표본 설계 시점에서 임신 및 출산의 관찰 사례 수를 추정해 본 결과, 기혼 여성 표본이 5,000~

표 4.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설계를 위해 검토한 해외 조사 사례

국가	조사 명칭
미국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여러 국가	World Fertility Survey Fertility & Family Survey Gender & Generation Survey
영국	The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Survey on the Impact of Fertility Problems Pilot national fertility patient survey
독일	Familienleitbilder - Concepts of Family in Germany Population Policy Acceptance Study
네덜란드	Netherlands Kinship Panel Study
호주	Jean Hailer's Women's Health Survey
일본	The National Fertility Survey The National Survey on Family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33.

6,000명일 경우 임신과 출산 사례 수는 분석 가능한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5,000~6,000명 정도의 기혼 여성 표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2021년 조사 전반의 개편을 위해 많은 문헌과 참고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관련 조사로 한국노동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살펴보았다. 참고한 해외 사례는 <표 4>와 같다. 또한 조사 명칭부터 표본 설계, 조사 내용과 세부 문항에 대하여 인구학, 사회학, 가족학, 여성학 등의 많은 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하여 개편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영진이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후 확정하였다.

마. 조사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2021년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결혼의 개념 또는 의미가 현실에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사에서 결혼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며, 결혼 시점은 응답자 본인들이 결혼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조사하였다. 사실혼 관계는 근대화 이후 일부 예외적 상황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일반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혼의 특성 또한 다양해졌다. 과거 처첩 제도의 잔재로 유지되던 사실혼 관계가 이제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능동적으로 활용 또는 유지되고 있는 점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혼인 관계 파악(설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어디까지 미혼이고 어디서부터 기혼자로 판단할 것인지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조사에서 ‘배

우자’로 설정했던 지위도 불명확해졌다. 이 조사에서는 법률혼 상태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판단하였고, 그 외의 상대방은 애인 또는 파트너로 분류,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한 쌍에 대해 그들의 관계가 실질적인 혼인 관계인지 조사했을 때 둘의 응답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조사에서 이들을 기혼으로 분류할 것인가 미혼으로 분류할 것인가? 한 명은 미혼으로, 한 명은 기혼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이들은 서로의 배우자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때 피임의 상대방을 어떻게 전제해야 할 것인가도 매우 큰 쟁점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유배우자의 성관계 상대는 한 명이고, 미혼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며, 상대와 상황에 따라 피임 방법과 결정 과정 등의 문제에서 복잡성이 더욱 확장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트랜스젠더가 관찰되었으며, 성별 판단이 쟁점이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이 응답하는 성별로 판단하였다. 만약 이런 경우가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면 표본 대표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간과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표본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의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의 답변을 존중하였다.

3. 조사 완료 표본의 특성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2018년 조사와 표본 특성이 크게 달라졌다. 이전 조사가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달리, 이번 조사는 혼인 상태와 성별 구분 없이 19~49세 성인을 대상으로 그의 배우자까지 표본으로 통합하고 조사를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를 방문하여 해당 가구에 19~49세 남녀가 있다면 모두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 남녀의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이 배우자로서 조사하였다. 49세 남성과 50세 이상의 여성이 부부일 경우 모두 조사 대상이 되며, 반대로 49세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이 부부일 경우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다.

최종 조사 완료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1만 4,538명으로 남자 7,498명, 여자 7,040명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미혼 1인 응답자는 6,038명, 미혼 동거 응답자는 11명이며,²⁾ 나머지 응답자가 기혼 응답자에 해당한다. 다만 표본 규모와 관련하여, 조사 자료를 분석한 전체 보고서는 분석 표본을 19~49세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배우자를

2) 미혼 동거 응답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10명으로, 5가구 각 2명이 응답하였으나, 가중치를 적용하면 빈도가 총 11명으로 나타난다.

표 5. 응답자 표본의 특성(50세 이상 포함)

(단위: %, 명)

구분		미혼 1인 응답	미혼 동거 2인 응답	이혼·별거·사별 1인 응답	법률혼 1인 응답	법률혼 2인 응답	사실혼 1인 응답	사실혼 2인 응답	합계	사례 수
전체	남자	48.6	0.1	1.9	0.4	47.0	0.0	2.0	100.0	7,498
	여자	34.0	0.1	4.4	25.6	33.4	0.9	1.5	100.0	7,040
	전체 (사례 수)	41.5 (6,038)	0.1 (11)	3.1 (453)	12.6 (1,827)	40.4 (5,881)	0.5 (69)	1.8 (259)	100.0	14,538
배우자 등 있음	남자		0.2		0.7	94.9	0.1	4.1	100.0	3,714
	여자		0.1		41.6	54.4	1.5	2.5	100.0	4,332
	전체 (사례 수)		0.1 (11)		22.7 (1,827)	73.1 (5,881)	0.9 (69)	3.2 (259)	100.0	8,047
배우자 등 없음	남자	96.3		3.7					100.0	3,783
	여자	88.5		11.5					100.0	2,708
	전체 (사례 수)	93.0 (6,038)		7.0 (453)					100.0	6,491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배우자 등'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애인과 파트너를 의미함.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54.

표 6. 응답 가구 표본의 특성

(단위: %, 가구)

구분	미혼 1인 응답	미혼 동거 2인 응답	이혼·별거·사별 1인 응답	법률혼 1인 응답	법률혼 2인 응답	사실혼 1인 응답	사실혼 2인 응답	합계
전체	51.2	0.1	8.6	16.1	21.1	1.1	1.7	100.0
배우자 등 있음		0.2		40.1	52.6	2.8	4.3	100.0
배우자 등 없음	85.6		14.4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배우자 등'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애인과 파트너를 의미함.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54.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가구 단위로 볼 때, 배우자 등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4,016가구였으며, 이 중에서 배우자가 조사에 응답한 비율은 57.1%로 나타났다. 당초 조사를 설계하면서 배우자 응답 비율은 큰 쟁점이었다. 2021년도 조사 개편에서 남성을 표본에 포함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남성 배우자의 응답률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응답률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 이 조사의 대표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 실제로 남성 배우자 조사 자료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배우자의 응답률이 57.1%로 나타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석 가능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다만 배우자의 직업 이력이 필요한 분석 모형에서는 분석 가능한 표본 구

모가 전체 여성 응답 표본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은 한계로 남을 것이다.

4. 나가며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하여 결혼과 출산 등의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를 개인 단위와 가족 단위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작용기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였다. 재생산 행동과 관련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건강 문제와 건강권 보장의 장애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구현상과 생애과정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대 관계와 젠더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가족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생애경로에서 가족 형성 시점은 지연되고, 결혼 이후의 가족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가족의 노부모 부양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자녀 양육 기능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사회의 제반 제도와 구조적 요인에 적응하는 개인의 행위 선택의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 맥락에서 결혼

과 임신,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변화도 이해되어야 하며, 향후 이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흥탁. (1994). 인구학-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The 2021 Family and Fertility Survey: Its New Features and Their Significance

Jongseo Park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2021 Family and Fertility Survey is a new name for the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Survey that had be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very three year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features that have been newly added to the Survey and explains their significance.

Considering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are no longer universal life events, in the 2021 Survey was intended to the understanding life without marriage and children as well as life within marriage. This article was aimed also at grasping the diversity and flexibility of family forms without presupposing the typical attributes of the family.

The 2021 Survey was redirected and its sample was redesigned to match it. The respondents to the previous survey were married women aged 15 to 49, but the 2021 survey takes as its respondents adult men and women aged 19 to 49 and their spouses and single and married people, all integrated into one sample. The survey was reorganized to examine the whole process of family formation from adolescence through the integrated sample, and to observe the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behaviors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within and outside the system of legal family.